

을 세워 놓을 수 있도록 마름모꼴의 구멍을 꼭 뚫은 것이나 흔히 碑閣이나 三間門의 左右側間 尊像앞에 施設하는 것과 같은 樣式의 것이다.

(3) 莫斯瓦...銘文있는 女莫斯瓦만 學例하자면 其一은 『崇禎八年』 乙亥四月日 雙峯 大施主金八莊方莫士兩主云云』 其二은 『崇禎八年九月日 雙峯寺造瓦』 云云』 其外에 『飯主海云』 康熙二十五年』 丙□二月□海云云』 『雍正五年』 丁未三月日(反書)』 『乾隆四十五年』 三月日』 大都監云云』 等인데 其中 『雍正五年』 『乾隆四十五年』 銘의 蓋瓦는 葺瓦中에도 多數 散在하고 있는 것이다.

## 二、木部の 狀態

### A、宗道里 및 合閣部分

宗道里(長一·〇二尺末口〇·七六尺)는 三層의 道里中心部에 놓인 童子柱에 놓였는데 宗道里中央이 長舌과 함께 心柱 뒷음에 끼여져 있고 그 周圍에 各 春舌의 뒷음이 結構되어 있다. 童子柱와 左右로는 合閣을 만들고 朴工을 달았으며 木只椽을 걸었는데 木只椽은 積木에서 出士된 바 있는 浮椽과 同一한 것이고 朴工板도 原來의 用材를 前後切斷하여 使用한 것이다. 서까래가 宗道里에 걸리는 모양도 제각기 달라서 一部는 長椽위에 찻서까래를 걸어 지붕틀대를 잡기도 하였 다. 이와 같이 합각머리가 어울리고 본래의 부재나 가구등과 동떨어진 것은 웬일일까 여러가지 疑問이 있어 實地로 調查實測하면서 解體하고 보니 이 部分이 近來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하여 첨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假定에 到達하게 되었다. 그렇 다면 지금의 팔각지붕은 본래 어떠한 형태의 지붕이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 문제를 뒤로 밀고 發見된 上檄文에 言及하기로 하자.

宗道里를 解體할 때 長舌과 分離하여 보니 도리바닥을 넓이 四·二寸의 폭으로 대패질 하고 『雍正二年歲在甲辰三月日上檄竣之觀者開而感焉』이라고 墨書하였다. 그 위로 홈을 파고 나무쪽으로 두정을 덮고 두정과 몸체에 어울려 『緘封』이라고 墨書하였으며 다시 그 위에 『開拆』이라고 陰刻朱書하였다. 두정을 열면 長九·六寸 幅一·八寸 深二·九寸의 홈이 있고 거기에 四分厚의 널판쪽을 덮은 것이다. 溝內에 橫在하는 竹筒을 꺼내측 두정을 T形으로 나무로 깎아 막고 그 안에 두루마리를 넣었다. 紙(長一·六七cm 幅三二·二cm)에는 上檄文을 墨書하였다. 『三層殿記』라 題하고 『雍正貳年三月日』에 『三重創』한 內容(本誌 資料欄 參照)이 記錄되어 있는데 이 文面은 『梭州之獅子山雙峰寺諸殿記文輯錄』이나 『雙峰寺事蹟記』에 실린 記事와 그 內容이 附合되고 있어 여러가지 興味있는 資料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檢討하면 積心中에서 發見되는 部材의 由來를 밝힐 수 있을 듯하다.

이에 對하여는 次號에 繼續키로 한다.

## 訂 正

### 在日石獅子座像과 그 方形臺座

黃 壽 永

本誌 二卷 二號(一九六一·二)에 실은 表題의 拙稿에서 石獅子一軀와 그 臺座를 『新羅의 優作』로서 그 年代도 西紀八〇〇年頃으로 推定되는 稀品이다』라고 한 것은 筆者의 誤認이었기에 訂正하면서 同人諸位에게 謝過하는 바이다.

이들은 一九五九年 九月에 日人 星島二郎氏가 自進 寄贈하여 現在 駐日代表部 庭園에 移置되어 있는 것이나 同氏는 二次大戰後 東京의 李王家邸宅으로부터 入手한 것이라 한다. 移置된 以後 筆者는 東京에서 二次 星島氏를 만나 直接 問議 하였을 때, 同氏는 韓日合邦前後에 日本으로 搬出된 것이며 一說에는 伊藤博文이 가져온 것이라고 傳한다고 하였다. 一九五九年秋 筆者가 처음으로 이 石物을 對하였을 때 그 造形이 華嚴寺石塔獅子와 너무나 恰似함에 놀랐는데 그 臺座의 形態와 手法(四角의 모를 없앤 것과 上面에 一段반침을 한 것)은 매우 特異하여 그 類例를 찾지 못하고 苦心한 바 있었다. 이 點은 最後까지 釋然하지 못하였으나 石獅子만은 新羅作으로서 더 疑心하지 못하였으므로 臺石 또는 石獅子와 同時作으로 推定하였고 그 當時 外務部에 報告한 바도 있었다.

一九六一年 九月에 華嚴寺를 찾아서 獅子塔을 細密히 調查할 때에 石獅子의 크기와 臺石四面의 天人像이 全히 同一함이 새삼스러히 注目되어 그 臺座의 實測을 同行한 鄭明鎬君에게 부탁한 바도 있었다. 同年秋 再次 渡日케 되었는데 十二月三日에는 李弘植先生과 같이 千葉縣으로 淺川伯教氏를 再次 訪問하여 日政初의 우리 古美術事情을 問議한 바 있었다. 이때 그는 옛 記憶을 더듬어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던 차에 求禮華嚴寺에 三個月이나 있었다는 말이 우연히 나왔기에 筆者는 그 理由를 물었다. 그리하여 石獅子의 製作이 目的이었다고 하므로 그 內容을 追窮하게 되었다. 同氏는 彫刻이 本業이어서 그의 作品이 一九一九、二〇年

頃帝展에 入選된 일까지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 意外의 事實에 누구보다 놀란 筆者가 이 때 同氏로부터 들은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年代는 「昭和頃」이라 하면서 當時 李王家博物館長 末松氏의 부탁을 받아서 石獅製作次 華嚴寺에 一箇月 木浦에 二箇月 滯留한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眞品을 撤出하자는 말도 있었으나 模造기로 하였다. 먼저 硯에 있으면서 韓紙를 使用하여 本을 엮는데 송곳(錐) 끝에 鉛筆을 달아서 하나하나 點을 찍어가면서 原品과 一分의 差異가 없도록 준비하였는데 이 방식을 「星取り」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後 木浦石이라고 그가 부르는 軟質石材를 木浦刑務所에서 마련하여 주었기에 그것으로 石獅와 臺座를 同時에 製作하였고 그곳에서 日本으로 直送된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 石材가 全南 潭陽 開仙寺址 石燈과 類似하고 또는 光州等地에서 產出되는 것과 同一한 것으로 처음에 推定한 것만은 아마도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拙文에서 華嚴寺塔보다 「年代는 若干 降下하는 作品이라고 한 것이 今世紀의 模造品임은 깨닫지 못하였다. 末松氏는 發送 二日前에 木浦에 와서 二日間 同宿하였는데 自己와 末松氏만이 이 作品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이기도 하였으며 費用은 二千圓이 들었고 그後 李王殿下로부터 좋은 것을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는 致賀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 石獅가 拙稿의 여러곳에서 引用比較한 바 있는 華嚴寺獅子塔의 各部原寸 그대로의 複製임을 確認할 수 있었다. 이같은 筆者의 誤判은 말할 것도 없이 撤出經緯에 대한 所藏者發言의 過信과 특히 未審한 臺座樣式의 解明을 疏忽히 하고서의 速斷과 用意不足에서 自招한 것이다. 古代의 遊離된 作品判定에 있어서 비록 輕微한 細部手法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疑問點이 남아 있을 때에는 그 作品에 대한 最終判定은 반드시 保留하여야 마땅하다는 것을 이때보다 痛感한 일은 다시 없었다. 더욱이 그 祖型으로서 華嚴寺獅子塔을 前提하면서도 그와의 細密한 比較를 거치지 못하고 判定하고 말았다는 것은 慎重을 잃었다고 指摘받아야 할 것이다. 이곳에 拙稿를 訂正함에 있어서 이 잘못이 筆者에 커다란 悔恨과 教訓이 되었다는 것을 告白하면 同人의 寬容을 거듭 부탁하는 바이다. 當局에 對한 報告의 責任 또한 筆者가 혼자 저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華嚴寺石塔과의 比較, 八旬이 넘는 製作者와의 面會確認 當局에 對한 解明이 끝났으므로 늦게나마 이곳에 訂正의 글을 記錄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같은 事實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星島二郎氏의 厚意와 衷心이 歪曲되지 않기를 부탁하여 두고자 하는 바이다. (十二・九)

訂正

前號 卍—스欄 萬壽寺 三尊石像의 所在地는 燕岐郡 錦南面 太平里가 아니라 黃龍里이유기 訂正함.

※ 百濟陶硯의 또 한 예 (鄭永鎭)

本誌 二卷 十二號 (一九六二年十二月)에 紹介한 表題의 拙稿는 淺識筆者의 큰 誤認이었기에 訂正하면서 同人諸位에게 깊이 謝過하는 바이다. 어떤 類의 作品이나 모두 그 「型」이 있어 樣式上 規範을 벗어나지 않거나와 이미 紹介된 數例의 陶硯에 있어서도 그러하며 多少의 變形은 있으나 硯型의 基本型만은 그대로이다. 拙稿에서 百濟의 三脚土器를 비록 그 形態가 興味있는 異形이라 하여 陶硯이라 한 것은 全혀 門外漢인 筆者의 輕率과 無識에서 自招한 것이라는 것을 告白하던 同人諸賢들의 寬容을 거듭 부탁하는 바이다.